

## 영국(Great Britain) 축성(Architectures of Castles)의 역사자료

- 잉글랜드(England)와 스코틀랜드(Scotland) (1) -

이 경 료<sup>1)</sup> (영국 맨체스터 공대 박사과정)

이 성(城) 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구나.  
이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감싸는 감풍(甘風)을 보라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지 않는가!  
우리 심감(心感) 하나하나에 살며시 스치면서...  
(This castle hath a pleasant seat; the air  
Nimbly and sweetly recommends itself  
Unto our gentle senses.<sup>2)</sup>)

만약 성(城)들 이 간수(看守)들의 머리위로 무너져 내린다 해도  
궁전들과 피라미드가 기울어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바닥으로 꺼진다 해도;  
이 모든 파괴(派壤)가 당신을 몹서리치게 한다 해도  
제발 대답해주오...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구해야 하는지...  
(Though castles topple on their warder's heads,  
Though palaces and pyramids do slope  
Their heads to their foundations;...  
Even till destruction sicken—answer me  
To what I ask you.<sup>3)</sup>)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 '맥베스' 中-

'성'(Castles)은 영국 문학의 거장(巨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작품 중 특히 4대 비극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가 작품 속에서 비추었듯이,

- 1) 현재 영국 맨체스터 공대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항공우주기계토목공학부(The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Civil Engineering)에서 CM(Construction Management) 전공. 특히 조정(Mediation)을 통한 성공적인 한국건설분쟁해결방법(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s)을 위해 미국, 영국, 홍콩의 조정모델을 비교, 한국조정모델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행 중.
- 2)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 (Macbeth) 중 1장, 왕위쟁탈과 암살목적으로 스코틀랜드 (Scotland) 장군 맥베스(Macbeth)가 영국(England)국왕인 던컨(Duncan)을 자신의 거성 (居城)으로 초대했을 때, 던컨이 그 성을 묘사한 구절(Duncan, in *Macbeth*, act 1, sc. 6, l. 1-3).
- 3) 맥베스(Macbeth)가 왕이 되기 위해 세 명의 마녀들(Witches)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을 구하는 장면 (Duncan, *Macbeth*, in *Macbeth*, act 4, sc. 1, l. 58-63)

‘성’은 영국인들의 삶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했던 살아있는 공간체(空間體)였다고 말할 수 있다. 수 세기를 걸쳐, 세월이 무수히 지난 현대사회에도, 성은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건축, 역사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그 특유의 아름다운 자태(姿態)와 명성으로 사람들을 아직까지 매료(魅了)시키고 있다.

‘성’(Castle)의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을 열광(熱狂)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성’이 가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이미지(Mysterious Image)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성’하면 우선 떠올리는 것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월트 디즈니(The Walt Disney)사의 어린이 동화나 만화 등,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통한 귀족사회의 전유물, 즉, 왕, 공주, 백작 등이 살고 있음직한 중세 유럽식 성일 것이다. 또한, 해리포터(Harry Potter)와 같은 영화를 통해, 마법(魔法)의 책으로 가득 찬 마법사(Wizards)의 어두운 밀실(密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 성 (The Walt Disney Castle)



왕의 기사단장(Master of Knights) 화형식

<그림 1> 성(Castles)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Images) 4)

또한, 역사책과 같은 논픽션(non-fiction)분야를 만약 선호(選好)하는 사람이라면, 위의 자료처럼 부패한 왕들이나 왕실가족들의 사형, 화형 집행이나 기타 처벌과 같은, 성에서 발생했던 무수한 유혈의 역사 속 괴기(怪奇)한 사건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구(長久)한 역사(歷史)와 미스터리한 상상(想像)이 더해진 ‘성’이 일반인들에게 높은 관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성’(Castle)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지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의 고정관념(固定觀念)들과는 전혀 달리, 영국의 성(Castle)의 기원(紀元)은 그 목적이 왕을 위한 저택도, 사형을 위한 집행장소도 아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4) 출처 <http://disneyworld.disney.go.com>, <http://www.imagesonline.bl.uk/britishlibrary>. 제목 Execution Scene. Master of Templars Burned.(자료 영국 국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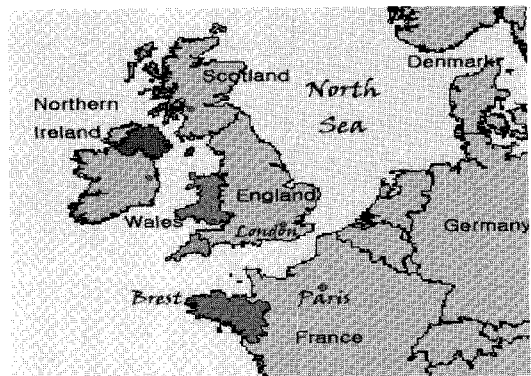
과 마찬가지로, 영국 내 성의 축조(城築造)는 군사용(Military Architecture) 건축물 설립에 그 본연을 두고 있다. 이 축조 목적은 성의 어원(語原)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 정통 옥스포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을 인용하자면, 성(Castle)은 라틴어의 'Castellum' 에서 기원했으며, 그 뜻은 'Camp', 즉 군대, 부대이다. 일반적으로 그 뜻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요새화(要塞化 Fortified)된 건축 축조물'이다. 포괄적으로 봉건제도(feudal system)하의 영주의 성이나, 대저택(mansions)등을 포함하기도 하나 그 기원은 방어용, 공격용, 도시의 요새화 등의 용도에서 출발한다.

이 군사용 건축물인 '성'을 두고 학자마다 견해가 상이(相異)한 경향을 보인다. 군사용 건축(Military Architecture) 역사학자들은 '성'을 단지 공격(Attack)과 방어(Defence)적 요소로 그 디자인과 기능을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두 요소로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에, 이 자료에서는 역사, 사회적 관점을 가미(加味)하여, '성'의 이해의 깊이를 넓히고자 한다.

본 자료를 위해, 유럽 국가 중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나라 영국(The United Kingdom<sup>5)</sup>)이 선택되었으며, 그 중 상이성(相異性)과 유사성(類似性)의 건축양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잉글랜드(England)와 스코틀랜드(Scotland) '성'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각 나라의 역사와 함께 소개되겠다.

### 성(Castle)의 건축양식과 영국사(英國史) 성의 발전 초기 단계 ~ 중세말기 후<sup>6)</sup>

초기(初期)의 '성' 축조목적은 단연 열악(劣惡)한 지리적 조건에서 기인한다. 그림 2와 같이 잉글랜드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북향(北向)으로는 스코틀랜드와 경계를 두고 있고, 프랑스나 덴마크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동쪽 해안선을 따라 침입 경로(侵入經路)가 개방(開放)되어 있어, 성의 축조도 이 선상(線上)을 따라 발전하였다.



<그림 2> 영국 및 근접 유럽국가의 지도

출처 :British Isles Map from <http://www.daire.org/names/islesmap.html>

잉글랜드(England)에 최초의 정착민으로 역사상 남는 민족은 이베리아족(Iberia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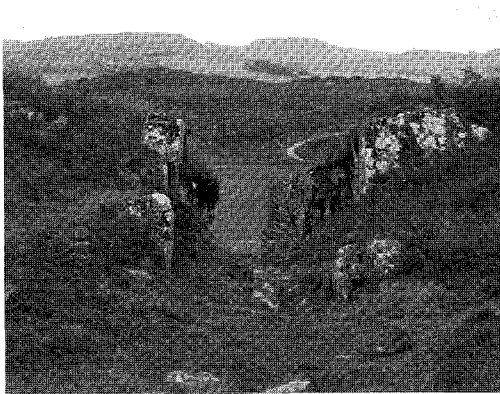
5)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알려진 영국의 정식 국호명(國呼名)은 'The United Kingdom or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일반적으로 대영제국 (Great Britain 혹은 Britain.) 으로 불리운다. 이 제국은 4개의 국가, 즉,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그리고 북 아일랜드(Northern Ireland)로 이루어져 있다. 잉글랜드는 웨일즈 정복(1536), 스코틀랜드 통합(1707), 북아일랜드 점령(1800)을 통하여 19세기 이후 유럽 최강의 왕국(王國)으로 거듭났다.

6) 중세 시대 후에도 성의 발전은 계속되나, 장식위주로 치중하고, 기본적인 본성(本城. Keep)의 형태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고 또한 지어진 성에 추가로 부속건물들이 지어지는 경향이기에 때문에 이렇게 시기를 정(定)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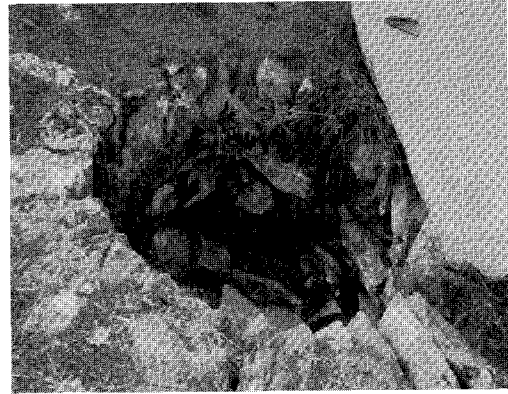
켈트족(Celt族)이겠으나, 성의 기원은 로마인의 영국정복(The Roman Conquest. AD 43)과 앵글로색슨족(Anglo Saxon族)의 정착과, 기존의 로마 군사방어시설 증축(增築)에서부터 출발한다.

비슷한 시기에 스코틀랜드도 성의 축조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이유도 잉글랜드와 같은, 지리적 악(惡) 조건에서 비롯된다. 스코틀랜드 동쪽으로는 북해(North Sea), 북서방향으로 대서양(Atlantic Ocean)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향으로는 잉글랜드(England)와 대치(對峙), 남서부 방향으로는 북 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마주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로마군대의 침입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기원 후 80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방계 켈트족 원주민중 하나였던, 픽트(Picts)족<sup>7)</sup>과 스코트(Scots)족이 탑(tower)와 같은 방어시설 축조에 힘썼다. 로마제국의 4세가 넘는 지배속에서 그것에 저항(抵抗)하기 위해, 그 형식은 그림 3과 같은 고대(pre-historic)건축형태인 ‘Hill Fort’<sup>8)</sup> 형태의 건설(建設)이었다. 잉글랜드(England)의 경우, 이런 종류의 ‘성’은, 기원전 200년부터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기 전의 기간(AD 43년) 동안에만 존재했고, 일찍 그 틀을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Dunadd Hill Fort의 입구



내부에 설치된 우물(井)

<그림 3>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Hill Fort , Dunadd의 형태<sup>9)</sup>

7) 켈트(Celt) 족 중 하나로써, 아일랜드(Ireland)에서 이주하여 스코틀랜드 내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한(1018년) 스코트인(Scots)과는 달리, 12세기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을 위해 잉글랜드와 대적(對敵)하며 크게 공헌한 민족. 영화 ‘브레이브 하트’(Brave Heart)에서 감상할 수 있듯이, 얼굴에 문신모양(Tattooed)이나 그들의 전형적인 칠(Painted)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뜻은 라틴어(Latin) ‘Picti’(Painted folk or tattooed)에서 유래한다.

8) ‘Hill Fort’은 군사방어용 거처지로서, 군사적으로 우세하기 위해, 성벽쌓기를 언덕(hill)의 윤곽에 맞추고, 한 개나 그 이상의토루를 울타리(stockade)나 방어벽(defensive walls), 외부 호(ditches)를 첨부하는 축조 기법.Brochs, Traprain Law and Eildon Hill Bronze Age hill forts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영국에 비해, 높은 산맥과 거친 암벽지대인 삭막한 땅에 성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으나, 이 자연 조건은 더없이 좋은 방어시설을 제공하는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9) 출처: <http://www.megalithic.co.uk/user.php?op=userinfo&uname=AngieLake>

중세 시대(The Medieval Period)와 성(castles)

중세시대는 ‘성’의 황금기(the Golden Age)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전의 선사시대(Prehistoric) 학자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하지만, 대략적으로 4~5세기부터<sup>10)</sup> 14~15세기까지를 중세시대(The Medieval Period)라고 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이 시기에 성 축조기법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이는데, 그 양식은 ‘노르만’양식이다. 그러나, 다른 시기에는 각각 독자적인 양식을 보이는데, 두 나라의 비교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잉글랜드(England)와 스코틀랜드(Scotland)의 양식

잉글랜드	시대(C)	스코틀랜드 <sup>11)</sup>
‘앵글로 색슨식’ (Anglo-Saxon)	5세기	고대양식(Pre-historic) 픽티쉬 양식(the antient Pictish) 켈틱(Celtic)
	6세기	
	7세기	
	8세기	이전과 비슷하나, 다양한 형태
	9세기	
10세기		
11세기		
‘노르만’식(Norman)	12세기	
‘초기 잉글리쉬’(Early English) ‘장식’(Decorated)치중	13세기	‘노르만’ 식(Norman) ‘노르만-프렌치’식 시도된(Norman-French)
	14세기	
‘사각형’식(Perpendicular)유행	15세기	
‘튜더’(Tudor)식	16세기	
	17세기	

5세기 초, 로마제국의 군대가 게르만족의 대이동(German민족 대이동)에 따라 영국 지배를 위협을 당했는데, 이로 인하여 5세기부터 11세기까지 잉글랜드(England)는 로마시대로부터 벗어나지만, 야만족 앵글로 색슨족 (Anglo-Saxon<sup>12)</sup>)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앵글로 색슨족은 자체적인 잉글랜드 왕국(England)을 세워 노르만민족(Norman. Dane)의 침입에 방어하기 위한 도시의 요새화(要塞化)에 전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성은 건축미학적(建築美學的)인 요소를 내포(內包)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방어(Palisading) 및 군사용 말뚝과 목탑(Wooden Tower) 형식의 구조를 보

10)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을 중세의 시작으로 여기는 견해와 로마가 멸망한 476년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중세의14세기~15세기로 여기는 게 대체이다.

11) 중세초기에 관한 스코틀랜드 ‘성’의 자료는 영국내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관계로, 저자가 임의적으로 명명(命名)하였기에 양해를 바랍.

잉글랜드의 튜더(Tudor)왕조(AD.1485~1558)때 유행했던 ‘튜더식’에 착안하여,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픽티쉬 양식(the ancient Pictish)이라 정하였다. 또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스코틀랜드의 격동기로서, 스코틀랜드 내의 여러 부족 국가들로 인해, 한 가지 공통된 양식으로 정의내리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관련자료가 16세기 이후의 ‘성’역사(A history of Scottish castles) 이나 선사시대(Prehistoric History)위주로 된 경향을 보인다.

12) 5세기 게르만민족(German)의 대 이동으로 인하여, 독일 북서부에서 영국(Britania;그 당시 지명)으로 건너온 게르만민족의 한 부족.

여준다.

5세기 로마제국의 멸망 후, 스코틀랜드에도 앵글로 색슨(Anglo-Saxon)족이 정착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존재했던 픽티쉬(Pictish) 왕국의 문화, 예술, 건축 등에 영향을 끼치는데 실패하였다. 이 왕국은 스코틀랜드에 더 존재했던 부족국가 중 하나였으며, 고대양식과, 픽티쉬(Pictish)양식은 Dumbarton, Stirling, Edinburgh, Dunadd, Dundurn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성의 발전은 잉글랜드의 경우 11세기, 스코틀랜드는 13세기로 부터 ‘노르만 민족’의 영향권으로 급진적으로 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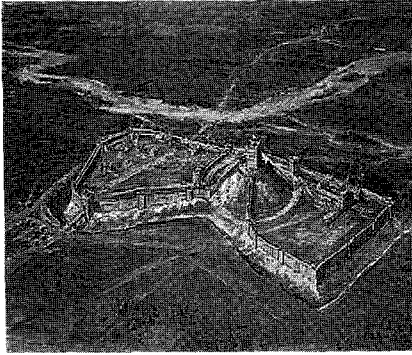
11세기 중반부터 약 90여 년 동안 잉글랜드의 축성역사는 노르만민족의 영국정복(Norman Conquest. AD 1066)과 함께 발전했는데, 특히 독특한 양식을 접목(접목)시킨 노르만 왕조는 그들의 전형적인 풍습, 봉건제도(Feudal System)를 영국에 도입시켜, 성을 왕족 및 귀족의 전유물(專有物)로써, 발전시켰으며, 왕이나 영주를 보호할 수단으로 성을 축조하였다. 영국에서 정의하는 진정한 의미의 잉글랜드의 성(English Castles)은 노르만민족의 영국지배(The Norman Conquest)와 함께 체계적인 군사방어용 목적으로 한 성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새로운 양식은 추후 플랜타지넷 왕가(Plantagenet)의 통치기간(1154~1399)에도 지속되는데, 웨일즈(Wales)를 나란히 마주하며, ‘성’은 또다른 경계선의 역할도 하였다.

8세기부터 10세기 사이 스코틀랜드는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n)에서 주로 활동했던 노르만의 후예이자 노르웨이(Norwegian)의 선조민족인 바이킹족(Vikining)의 영향을 받게 되나, 영국과는 달리, 스코틀랜드(Scotland)는 13세기쯤 영국보다는 늦게 노르만(Norman)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영국과 비교하여, 그 규모는 적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상 스코틀랜드는 노르만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의 노르만 양식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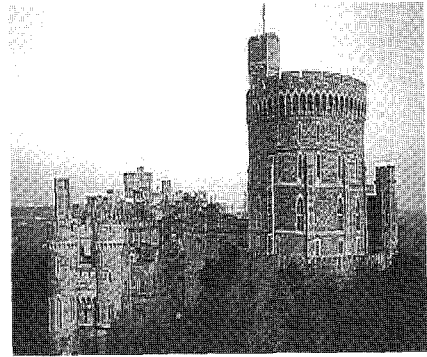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노르만 양식의 성은 (Castles of The Norman Style)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셸형(Shell Keep)과 사각형(Rectangular Keep) 형태를 강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속이 빈(Void) 셸(Shell) 모양의 외형을 취하며, 장식을 배제하고 길고 수직적인 라인을 강조한 형태를 취한다. 자세히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토루에 셸(Shell) 형식으로, 석조재료가 그 주위를 에워 쌓듯 구형을 이루어 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양식보다 더 진보된 기법으로써 기존의 방어용 나무목재(Timber)위에 새로운 건축재료를 접목시켜 발전시킨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예로 잉글랜드 내 윈저 성 (Windsor Castle)과 스코틀랜드의 로더세이 성(Rothesay Castle) 이 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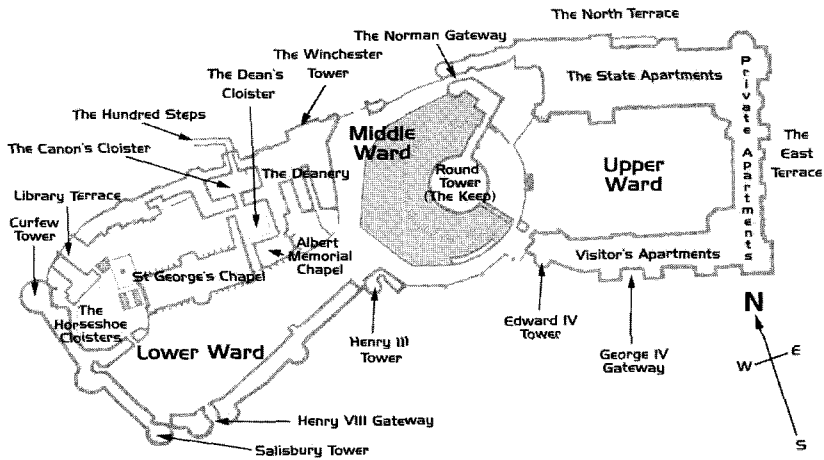
노르만 왕조의 백작이자, 영국의 침략자로, 왕의 자리를 군림(君臨)한 윌리엄 (William, Duke



셀 형태의 본성(本城, Keep)<sup>13)</sup>



현재 윈저 성(Windsor Castle)의 형태 (2006)



윈저 성(Windsor Castle)의 평면도(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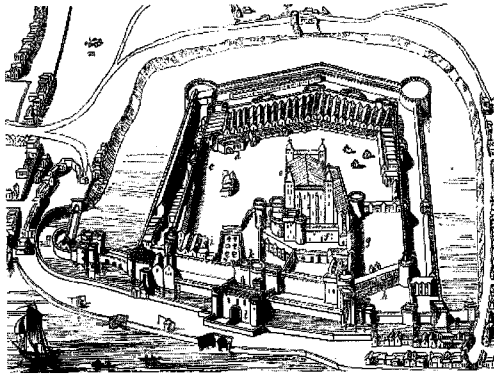
<그림 4> 윈저성(Windsor Castle)<sup>14)</sup> 과 노르만(Norman) 양식

of Normandy, King of England. 1027~1087)이 목재를 사용하여, 윈저성의 도면에 중간부에 위치한 'Round Tower'를 군사방어용 목적으로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시초가 되어 윈저 성의 모태(母胎) 노르만 양식의 대표적인 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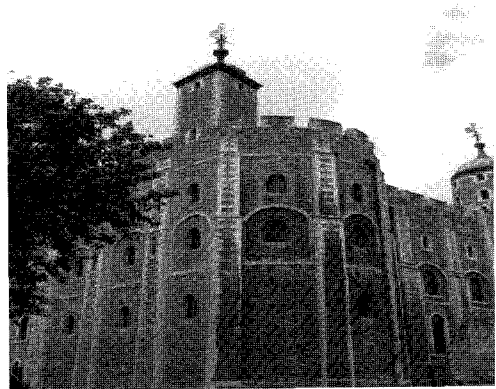
둘째, 전의 셀 형태보다 발전된 양식을 보이는 사각형(Rectangular) 형태를 취하는 성은 대부분 안뜰과 정원이 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전반적으로 석재며, 4층 높이로, 높은 성벽('enceinte')와 깊은 외호(外濠 Moat)가 그 특징이며, 성의 입구는 대개 1층에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추가된 성벽으로 그 출입이 훨씬 강화되었다.

13) 건축용어로 'Keep'은 성 내에서 가장 크고 강건히 지어진 본 건물로, 추후 성 소유자의 주거지로 이용됨. 또한, 이 본 성(Keep)을 기본 주축으로 평면의 다양성을 보임. 이것은 라틴어의 'Dominus'(Lord)란 어원에서 출발하여 영국건축사에서 'Donjon'라는 전문용어로도 불리나 영국의 '지하감옥'(Dungeon)으로 나중에 그 뜻이 변질된 이후 그 뜻을 대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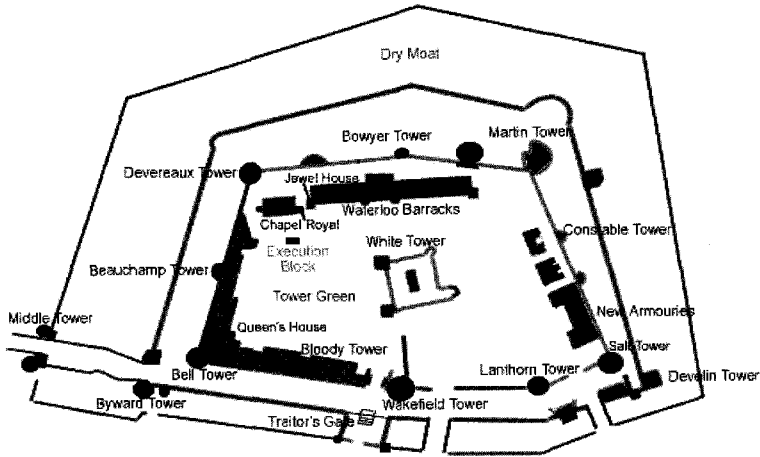
14) 출처<http://www.thamesweb.co.uk/Windsor/castle/castlemap.htm> [http://en.wikipedia.org/wiki/Windsor\\_Castle](http://en.wikipedia.org/wiki/Windsor_Castle).



런던탑 (The Tower of London)  
Knight, Charles: "London (Volume II)" (1841)



White Tower 측면(側面) 사진



런던 탑(Tower of London)의 평면도(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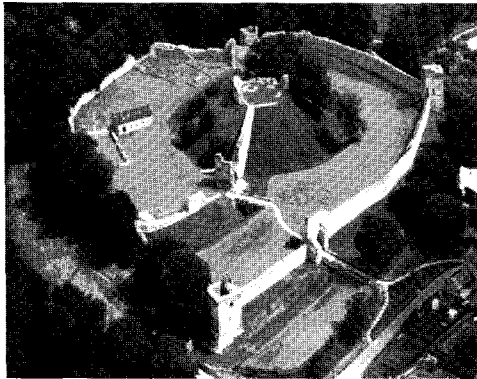
<그림 5> 런던 탑 (London Tower)의 모태(모태), White Tower 의 노르만 양식<sup>15)</sup>

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Tower of London)의 White Tower가 이 노르만 양식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스코틀랜드(Scotland) 또한 유사점(類似點)을 보여주는데, Rothesay Castle 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성벽과, 매우 단조로운 설계, 외벽을 지지(支持)할 수 있는 본성(Keep) 에 사각형 탑(Square Tower)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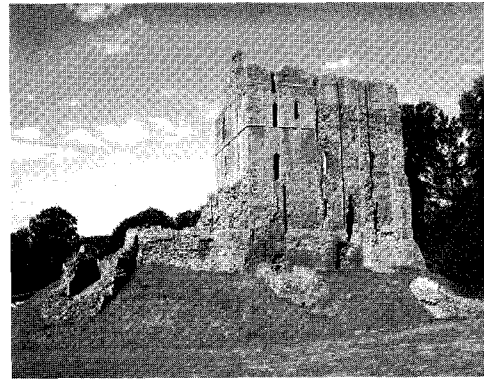
특히, 이 사각형태의 성 축조술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기법은 ‘Motte and Bailey castle’(모트 앤 베일리 캐슬)형태이다. 여기서 ‘Motte’란 동심원 호(壕)를 파고, 10~100 피트(feet) 높이로 중심점으로부터 100~300(feet) 반경으로 말뚝박기(piling)로 쌓는 군사방어(Defence)기법이며, 방죽

15) 참고자료 및 출처 [http://www.greatbuildings.com/buildings/Tower\\_of\\_London.html](http://www.greatbuildings.com/buildings/Tower_of_London.html),  
<http://cruises.about.com/od/europeancruises/ig/Tower-of-London/Tower-of-London---White-Tower.htm>,  
<http://cruises.about.com/od/europeancruises/ig/Tower-of-London/Tower-of-London---White-Tower.htm>  
<http://www.perseus.tufts.edu/cgi-bin/ptext?doc=Perseus%3Atext%3A2000.01.0017>  
[http://www.britainexpress.com/Where\\_to\\_go\\_in\\_Britain/London/tower-of-london-plan.htm](http://www.britainexpress.com/Where_to_go_in_Britain/London/tower-of-london-pla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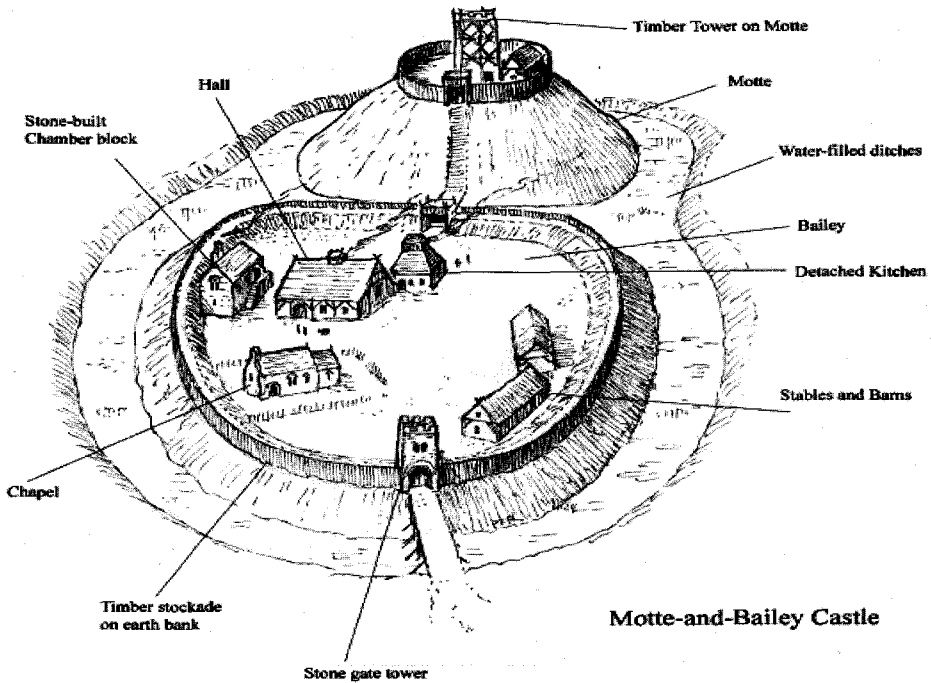




Pickering Castle - North Yorkshire



Norham Castle Berwick, Scotland



Motte-and-Bailey Castle

<그림 6> 노르만 Motte-and Bailey Castle (모트 앤 베일리 캐슬)의 전형적인 예<sup>16)</sup>

(토루)와 같은 형태를 취하며, 대부분 언덕이나, 파여진 곳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주로 지어진다. 'Bailey'란 외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쪽의 뜰(정원)을 뜻하며, 성의 중심부분을 단조롭게(Central-Plain) 하는 노르만 민족의 특유한 건축요소이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Bailey'(베일리)는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Motte'(모트)와

16) <http://www.durham.gov.uk/durhamcc/K2P.nsf/K2PGlossary?readform&GLOSSARY=motte>  
<http://www.undiscoveredscotland.co.uk/berwick/norhamcastle/>  
[http://www.castleuk.net/castle\\_lists\\_north/100/pickeringcastle.htm](http://www.castleuk.net/castle_lists_north/100/pickeringcastle.htm)  
<http://www.castles-of-britain.com/castlesa.htm>

분리될 수 있는데, 이는 이 두 공간이 방어용 나무다리(a palisade)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안뜰에는 가축의 사육이나 사람의 거주하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으며, 'bailey'와 'motte'는 호수와 같은 외호로 둘러 싸여져 있고, 가동교(可動橋, drawbridge)를 설치하여 적의 공격을 수월하게 막기 위한 배치에 힘썼다. 하지만 이 형태를 취한 성 축조는 단지 임시방편적(臨時方便的)인 방어(防禦)축조기법으로 건축되었다. 대표적인 성은 잉글랜드의 Pickering Castle(North Yorkshire)과 스코틀랜드의 Norham Castle Berwick이다.

스코틀랜드의 성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노르만 민족의 침입을 전혀 받지 않았고, 동맹국인 프랑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13세기)부터 'Norman-French'양식을 보인다. <그림 7>의 Dunrobin Castl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Dunrobin Castle, Sutherland, Scotland Dunrobin



The Castle and Garden

<그림 7> 노르만-프렌치(Norman-French)양식<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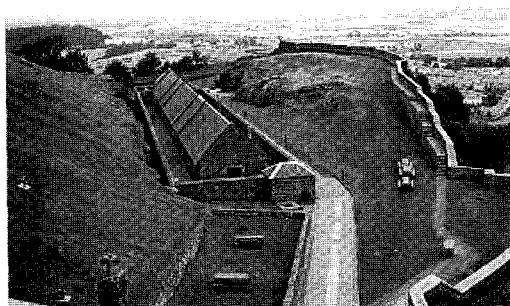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1 세(Edward I)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기 위한 침입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스코틀랜드가 에딘버러 성(Edinburgh) 등 주요 성들이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됨으로써, 영국보다 훨씬 진보된 'Norman-French' 양식의 성에 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후에 프랑스와 잉글랜드 간에 있을 백년전쟁(The Hundred Years War, 1337~1453)의 승리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노르만시대가 종결되고 13세기 초 초기 잉글리시 시대(Pre-English Period)에는 성의 규모가 보다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며, 14세기 왕위계승 전쟁기간에 들면서 '성'의 목적은 변질(變質)되어 군사방어용 수단이기 보다는 거주자의 안락(domestic comfort)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는 특히 남부지방에서 강한 '주거성(domesticity)'을 보이는데, 백년전쟁으로 장기화된 상황에, 식량이나 군사물자 공급 등 군사들의 거주생활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사려(思慮)된다. 남쪽으로는 프랑스와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와 대치하며 발생된 수많은 전쟁을 겪고 대부분 승리를 거둬도 불구하고 빈번한 시민전쟁(civil war)때문에 이 시기에 성의 발전은 전무(全無)하다

17) <http://www.castles.org/Chatelaine/DUNROBIN.HTM>

고 할 수 있다. 웨일즈(Wales)에 위치한 Stokesay Castle이나 Caerphilly, Beaumaris, Conway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는 성이 노르만 형식의 본성(本城)의 양식을 따르나 13세기 성들 보다는 확장(擴張)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스코틀랜드 독립전쟁(The Wars of Independence, AD1313~1314)을 거치면서 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건축양식을 보인다. 평면상 L-형태(L-Plan)을 보이는 성들도 있으나 특별한 장식이나 성의 부속실(附屬室)을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다. 이 시대는 특히 스코틀랜드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라고 불리는데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편이라 할 수 있겠다.



노르만 양식이 유지된 Bailey형태



노르만 양식 성의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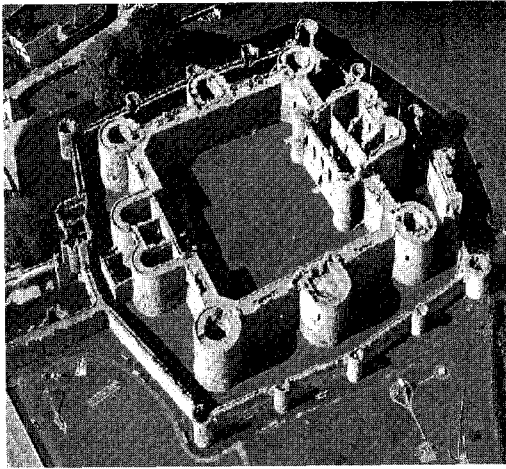
<그림 8> Stirling Castle과 성 발전의 정체기(停滯期)<sup>18)</sup>

14세기부터 이 시대를 영국(English) 건축역사학적으로 ‘장식의 시대’(Decorated Period)라고 칭하는데, 기존의 성이 장원제도(manor system)하에 ‘성’의 이용에 있어보다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저택의 형태로 변모되어 갔다. 성은 영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써, 사유 군대(Troops) 양성과 행정적, 사회적 지휘확보의 중심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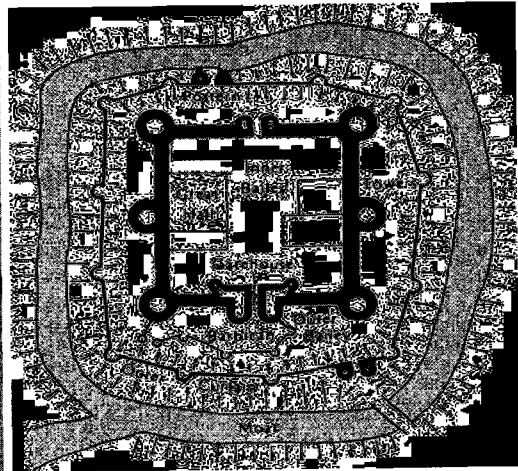
더욱이, 성은 민중 폭동(Civil Disturbance)시 영주를 위한 군사 집결지로 이용되는 본 목적을 탈피하여, 새로운 건축디자인요소가 가미되면서, 왕실의 거주지나, 법정, 대저택(Manor House)로 변모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Kenilworth castle 이 있는데 원래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추후 장대한 현관입구(porch), 연회 홀, 부엌 및 방재시설 등 주거, 일상생활을 위한 건축요소가 가미되었다. 성의 형태에 있어서는 동심원(同心圓) 형태 (Concentric Type)가 유행하였다.

이 형태는, 사각형(Retangular Type)의 본성(Keep)보다 더 견고하며, 동심원 형태의 본성(Central)을 취하지 않으며, 성의 입구를 적에게 잘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계하였으며, 성문의

18) <http://etext.library.adelaide.edu.au/s/scott/walter/waverley/images/pb078.jpg>



Caerphilly Castle, Wales



성의 평면도(平面圖)

<그림 9> '동심원 형태'의 대표적인 성, Caerphilly Castle<sup>19)</sup>

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동교(可動橋.drawbridge)를 이용하는 형태는 기존의 노르만 형식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겠다. 성의 중심부에는 연속된 커튼 월(Curtain wall)형식으로 설계, 즉, 이중벽 설계(Walls within Walls)로 되어 있다. 이 벽은 다른 벽에서 또 다른 외벽으로 화력공격이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성의기능에서 한 단계 진보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 중세시대 직후 (Post-Middle Ages); 15세기 후반~16세기

15세기 후반, 잉글랜드는 절대 왕정주의(왕정주의)를 확립하였는데, 그 후, '성'의 형태는 또 다시 새롭게 변모하였다. 이 시대를 이른 바, '수직적 시대'(Perpendicular Period)라 일컫는다. 15세기, 왕실의 권력 장악에 따른 상대적인 귀족들의 권위약화로 인하여, 군사전략의 개발에 따른 축조 공법 변화와 함께 장식(Detail)요소가 현저(顯著)하게 가미(加味)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튜더 왕조(Tudor Period. AD 1485~1558)는 성을 사유(私有) 추밀원(樞密院)으로 사용했으며, 고딕형식(Gothic Style)을 도입하여, 중세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영국 특유의 전통 건축을 시도하였다.

이 기법은 주재료인 석재가 큰 단위로 제작되어 (Mass-Produced) 장식(Ornamentation)이 용이하게 설계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건물들과 사각 형태의 안뜰 높은 성벽과 외호가 기본 틀이 되었으며 특히 방어목적으로 축조된 성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지붕을 삽입하거나 매끄러운 마감(Gilded Finals), 총안설비(銃眼設備, Crenelation)와 같은 화려한 디테일(details)을 추가하여 보

19) [http://www.montaguemillennium.com/medieval/Medieval\\_Concentric.htm](http://www.montaguemillennium.com/medieval/Medieval_Concentric.htm)  
<http://www.castlewales.com/concen.html>

다 밝고 우아한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Warwick Castle, Alnwick Castle 등에서 이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15세기 중엽까지 스코틀랜드의 성 중세건축은 노르만 식의 영향 아래, 영국과 유사성을 보였으나, 16세기 이후,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다른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보인다.

이 무렵,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접한 국경을 따라 방어시설에 몰두하였으며, 국가 내부의 불안정한 상태를 진압(鎮壓)할 수 있는 내부 성 축조에 총력(總力)을 기울였다. 이런 이유로, 성의 형태상, 본성(Keep)에서 확장된 L-형태(L-Plan)와 함께 모서리 부분에는 층계를 추가된 탑(Tower)을 설치하는 기법이 대세(大勢)였다. 대표적인 축조물은 Durham 과 Northumberland에 있는 성들이다. 스코틀랜드는 ‘성’을 방어용으로 여기는 입장은 16세기 말까지 고수하여, 군사용 성 축조와 그 기법연구에 충실하였다.

안뜰과 정원(Bailey)과 본 성(Keep)은 L, E, T, Z등의 형태(Plan)를 띄며 성의 내·외부에서는 르네상스(Renaissance)식의 장식(Details)을 현저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 원뿔모양의 지붕이나, 군사용 탑(Tower), 코블(Corbel)<sup>20)</sup>, 총안(銃眼)이 있는 흉벽(胸牆) 등 오래된 군사 방어적 건축요소들은 그 본연의 기능보다 장식으로써 인식되었다.

## 다음 자료에 관한 안내

이제까지 영국 ‘성’이 지역에 따라, 군사적 목적에서 주거생활로 바뀌는 시점과 각 세기마다 추구하는 양식의 특색이 다른 것처럼 16, 17세기 이후의 ‘성’의 역사와 그 축조기법도 매우 흥미롭다. 그래서 다음 자료에서는 16세기부터 현재까지 성의 발전과정과, 사용목적, 건축양식의 변환(變換) 등에 대해 알아 볼 예정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양숙(挾宿)인 16세기의 잉글랜드 튜더(Tudor)왕조의 독자적인 건축양식 ‘Tudor style’은 스코틀랜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 시기에 스코틀랜드는 연속된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더 이상 성 축조를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프랑스의 성 축조공법은 스코틀랜드에게 영향을 계속 주었으며(Norman-French Style) 18세기 이후에 스코틀랜드 특유의 바로크 양식을 성에 접목(接目)시키는데 이를 이른바 ‘스코티쉬-바로니얼 스타일(Scottish Baronial Style)’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또한 성 안에서는 ‘피의 회오리바람’이 불었는데 런던 탑(The Tower of London)과 같이 성이 왕들의 사형집행 장소나 수용소(監屋)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에드워드 2세(Edward II)가

20) 코블(Corbel)이란 벽에 달아 붙인 받침대나 까치발 같은 물체를 뜻한다.

Berkeley성 하수구 옆 지하 감옥에 수용되었고 프랑스인이었던 그의 아내 Isobel이 그녀의 연인(戀人) Mortimer가 죽임을 당한 후 Castle Rising에 21년 동안 수감(收監)되기도 하였다. 이에 성의 근본적인 축조목적과 다른 ‘주거형’과 ‘행정형’ 형태도 소개되겠다.

< 참고 문헌 >

1. David Ross(2005) English History of A Nation. Gennes & Grosset
2. John B. Nellist (1967) British Architecture and its Background. MacMillan & Co. LTD. St. Martin's Press.
3. Oliver Hills (1953) Scottish Castles of the Sixteenth & Seventeenth Centuries. Country Life Limited.
4. Richard Killeen (1994) A Short History of Scotland. Gill & MacMillan
5. Willam Anderson (1970) Castles in Europe. From Charlemagne to the Renaissance. Elek .London.